



잊고 싶은 기억의 해방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1985년 4월 21일,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 민족의 절멸 수용소가 있는 베르젠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은 역사 앞에, 나치의 포악함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또한 시효 없는 수치 속에서 표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효 없다는 발언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그 책임의 효력이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을 일국의 정치 지도자 입에서 듣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그 이데올로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국민의 자랑, 명예, 자존심의 고양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언행인 만큼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콜 수상의 발언이 있기 20년 전인 1965년 당시 사회민주당 출신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나치

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의 영혼이 잠든 기념비 앞에 헌화하면서 무릎을 꿇고 깊은 사죄를 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은 양심 있는 정치 지도자의 참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음을 실감했었다. 브란트 수상의 이 행동은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저지른 나치 정권의 폭정을 시인하고 속죄하여 독일인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면죄하겠다는 분위기가 서독 사회에 보이기 시작했다. 브란트 수상이 참회의 무릎을 꿇은 지 20년만인 1985년의 콜 수상의 발언은 독일에 때아닌 “기억의 회귀”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85년 애도의 물결은 사적인 기억을 넘어, 학문적 기억의 수준을 넘어, 역사 앞에 공공적 성격을 띤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럽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주의자들의 습격이나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부르짖는 정치세력의 대두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또한 1989년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나치와 유사한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승리로써 나치의 포악성이 다시금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를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프랑스에서 과거 1942년 7월에 일어난 파리의 유대인 일제 검거사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경찰의 책임이 5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 유대인 검거사건이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량 검거사건으로, 기록에 의하면 13,152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는데 이때 프랑스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음이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또 1994년에는 나치 점령 기간 중 암울했던 프랑스의 역사기록이 허구임이 밝혀졌는데, 민병대의 첩보부대장이었던 폴 투비에는 처음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현직 대통령 미테랑 자신이 1930년대에 우익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페탕 원수를 숭배하고 비시 정부에 협력했으며 더구나 유대인 박해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프랑스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암울했던 과거 나치 정권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의 “기억의 해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생활하던 시

기에 마취되어버린 듯한 정신적 안정을 타파하고 해방된 기억의 내용을 되살려 격렬한 “역사적 해석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1989년 독일에서 일어난 “역사 논쟁”은 그 적절한 예라 하겠다. 이는 아시아에서 세계 2차 대전 기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후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언행이 없을 뿐 아니라 일언반구의 사죄 유감 표명이 없는 것과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일본군의 심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없었던 미군 수뇌부와 종전 후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군정 시행을 위해 미국 정부는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인에 대한 심리분석을 요청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그 결과물이 『국화와 칼』인데, 베네딕트는 이 저서로 인해 인류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 연구 결과 동양을 대표하는 아시아와 서양을 지칭하는 서구의 문화적 차이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는 “부끄러움을 기조로 하는 문화”로, 서구는 “죄를 기조로 하는 문화”로 설정했다. 베네딕트는 서구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일단 법적 책임을 다한 다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양인은 대체로 법적 책임감에 앞서 부끄러운 수치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서 잊고 싶어도 쉽게 잊을 수 없다는 것이 동양인의 일반적 성품이란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회단체에 천문학적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치 정권이 저지른 무거운 범죄에 대해 계속 사죄하는 반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범한 포악한 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어린 소녀들을 납치 성노예로, 젊은 청년들을 강제 노동시킨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베네딕트가 말한 “부끄러움을 기조로 하는 문화”와 “죄를 기조로 하는 문화”란 동서양의 문화 비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언행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로남불” 현상을 보면서 필자는 11세기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한 북송의 정치철학자인 사마광(司馬光)이 평소에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다만 평소에 남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언행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정치지도자의 참된 모습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KIIF**